

##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권용석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원)\*

황보운 (국민대학교 부교수)\*\*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 국 문 요 약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큰 잠재력을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최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136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액셀러레이터는 발원지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이후에도 액셀러레이터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성공적인 스타트업 지원에 필수적이다. 아직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단계이므로 관련 연구나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보다 정교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지원받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판단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와 액셀러레이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후속 투자유치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를 액셀러레이터에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의사결정, 렌즈모델, 판단분석

## 1. 서론

과거 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를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했으나, 인건비 지출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 기조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기존 융자 중심에서 직접적인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모태 펀드, 엔젤 매칭 펀드 같은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3).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기관이 출연한 중

소기업 연구·개발 (R&D) 지원예산 규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1조 7,412억 원에서 2015년 1조 9,36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금액도 2011년 1조 2608억 원에서 2017년에는 2조 3,80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맞춰 역대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해 4조 4,430억 원에 이르렀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8).

정부는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창업 지원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2020년까지 10조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소위 1세대 벤처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토대로 벤처투자자로 나서 벤처 선

\* 주저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원, kys@kvca.or.kr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부교수, yun88@kookmin.ac.kr

\*\* 공동저자, 롯데액셀러레이터 본부장, hoonhoon@lotte.net

· 투고일: 2019-01-10 · 수정일: 2019-02-20 · 게재확정일: 2019-02-26

순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경제성장, 실업문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스타트업의 지원 확대 추세에 따라 최근 많은 스타트업 지원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단편적인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나 정책과는 다른 종합적인 스타트업 육성·지원 기관으로 액셀러레이터가 주목 받고 있다.

창업이 유행하는 시대에 그 중심은 액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투자, 보육 등 종합적이면서 밀착지원을 통해 초기 단계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정우, 2016).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시드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연계 및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주강진 외, 2016).

아울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지원에 최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기술 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배영임, 2014).

김용재·염수현(2014)는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맞는 전문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창업 단계와 창업후 단계 운영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연결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의 현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법적 지위는 2016년 5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부여되었으며, 액셀러레이터 산업의 확대를 위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6년 11월부터 액셀러레이터 등록제가 실시되었다.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적 등록을 하지 않고도 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혜택 등 법률에 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시행 1년 반이 흐른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136곳의 액셀러레이터가 등록되었고, 초창기에 등록하지 않았던 대형 액셀러레이터인 이니시스 창업자인 권도균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머와 다음 창업자인 이택경 대표가 운영하는 매쉬업엔젤스도 등록했으며, 총 24개의 액셀러레이터에서 76개의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세계 혜택 및 LP로 일반법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허가 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는 발원지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하는 사회적 합이나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하

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 초기 단계를 넘어선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의사결정요인들 가운데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여러 요인들 중 어떤 요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선택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들 간에 상대적 가중치를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액셀러레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업계 그리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스타트업

#### 2.1.1 스타트업의 정의 및 특징

초기기업이라고도 불리는 스타트업 (Start-Up)의 국내 법률상의 정의는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자이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7)’. 국내에서는 벤처기업, 초기기업, 창업 등 명확하지 않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의 창업자인 폴 그레이엄은 스타트업을 ‘성장’이라고 표현했고 페이지팔의 창업자인 피터티엘은 들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했다.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도 확실하게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용어지만 현재까지 정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장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이전 단계의 기업’을 의미한다.

#### 2.1.2 국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현황

최근 정부의 창업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과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인에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율(전체 창업기업 법인 중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는 법인의 비율)은 2012년에는 전체의 0.3%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0.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그리고 2018년 1분기에 신설된 신규 법인은 2만 6,747개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창업과 창업지원의 증가에도 국내 창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에 있다. 2013년 기준 1년차 기업의 생존율은 62.4%, 2년차 기업은 47.5%, 3년차 기업은 38.8%에 불과하다(중소기업청, 2013). 이는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인데 2015년 기준 3년차 기업 생존율에서 조사대상 25개 국가 중 38%로 25위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스웨덴 75%, 영국 59% 프랑스 52.7%, 독일 52%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국제무역연구원, 2015).

현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존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 기업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장 진입 초기 매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경색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담보 부족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엔젤·벤처캐피탈 등에게 외면당하며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경우,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 사업 내용에 대한 핵심 컨설팅 등의 부족 등이 있다(국제무역연구원, 2015).

최근 이러한 스타트업의 낮은 생존율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스타트업의 낮은 생존율 극복을 위해 여러 지원과 문제로 지적되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다. 초기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과 자금 및 교육, 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창업에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재창업자를 위해 재도전지원 성공패키지, 재창업자금 융자 세금 징수기간 유예 확대, 재창업자 대상 R&D 자금 지원, 재창업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창업자를 빛의 굴레로 빠뜨리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공공 창업보육센터 (BI),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VC) 등은 자본과 공간 등에 집중되어,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금적인 문제와 사업의 방향에 대한 지원 등 종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과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운영기관의 중심이 되어 사무공간 등과 같은 외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 분야와 상황에 적합한 멘토링 및 교육과 시드머니 투자 등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프로그램과 연계가 부족한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는 운영기관별 성과경쟁을 요구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정한 기업지원이 아닌 성과를 올려 경쟁을 이기기 위한 지원에 방점이 맞춰져 초기기업이 진정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투자의 첫 단계라고 불리는 엔젤투자자는 초기 기업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 시설 제공과 보육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이 없이 투자만 이루어지고,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한계로 조합을 제외한 엔젤클럽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의 규모는 줄어가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 (V.C., Venture Capital)은 창업초기보다는 사업모델이 완성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중·후반기 또는 IPO를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창업공간과 보육기능 프로그램이 연계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기업의 사무공간과 여러 시설, 그리고 제한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I)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창업초기에 필요한 시드 자금과 기업의 맞춤형 멘토링 등의 지원은 부족하다. 스타트업이 창업초기에 필요한 창업지원 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면 창업보육센터 (BI)는 기업의 사무 공간과 시설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투자 및 투자연계 기능이 없고 일시적인 교육과 멘토링에 그치고 이로 인해 종합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

계가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 (VC)은 창업초기의 단계를 넘어서 중·후반기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과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이 없는 특징을 보이며, 창업초기 기업에 가장 수요가 큰 투자자인 엔젤투자자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라는 현실적인 제한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창업 공간 제공과 보육프로그램이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기존의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예비창업단계부터 초기창업단계에서의 사업화에 필요한 초기 자금과 기업의 단계 및 분야에 적합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등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2 액셀러레이터

### 2.2.1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특징

학문적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짧은 단생의 역사와 해당 기관들의 활동지역, 운영 형태, 설립 목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여러 개념정의 시도들이 존재해 왔다.

최초의 연구문헌적 정의이며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로 ‘데모데이를 마지막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수 기반으로 진행되며 멘토링과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Cohen & Hochberg, 201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토대로 미국 연방 중소기업청(2013)에서는 액셀러레이터란 유망기업에 Seed단계의 투자를 제공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데모데이를 마지막으로 하는 멘토링과 교육 세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수기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기관이라는 정의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SBA, 2014). 또 다른 액셀러레이터 정의를 살펴보면, 김선우(2015)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 (accelerating)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정우(2016)는 소규모 팀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선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디어 발굴, 초기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해외진출’을 전 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간전문기관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6년도에 제정된 액셀러레이터 관련 법의 정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9조에 따라 ‘초기기술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보육을 실시하고 초기기술창업자에 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할 창업자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창업자에게 1천만 원 이상의 시드 자금을 투자 또는 투자연계를 하고 선발된 창업자들에게 3개월 이상의 사무공간 및 시설 또는 보육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기업의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추가 지원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7). NEST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의 액셀러레이터 현상에 대한 보고서 ‘The

Startup Factories: The rise of accelerator programs to support new technology ventures'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특성들을 제시하였으며, Cohen & Hochberg(2014)은 액셀러레이터와 엔젤투자자의 비교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액셀러레이터의 특성

번호	특성
1	누구나에게 Open되어 있지만 상당히 경쟁적인 기업 선정
2	투자를 집행하고 지분을 취득
3	개별 창업자보다는 작은 팀에 집중
4	각종 이벤트와 강력한 멘토링으로 구성된 한정된 기간 동안의 지원
5	개별 회사보다는 기수 형태로 운영

출처: NESTA, 2011

<표 2>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엔젤투자자와의 비교

구분	Accelerators	Angel Investors
기간	3 months	Ongoing
기수제	Yes	No
사업모델	Investment; non-profit	Investment
선발 주기	Competitive, cyclical	Competitive, ongoing
성장단계	Early	Early
교육 프로그램	offered Seminars	None
벤처의 위치	Usually on-site	Off-site
멘토링	Intense, by self and others	As needed, by investor

출처: Cohen & Hochberg, 2014

법적인 등록절차를 마친 액셀러레이터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먼저 기존의 전문엔젤투자자 등 제한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기존의 펀드에서는 유한책임조합원(LP, 이하 LP)로의 참가만 가능해 액셀러레이터가 선발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2018년 4월 기준 24곳의 액셀러레이터가 76개의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운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법적 등록 절차 없이 운영은 가능하지만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적인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본금, 전문인력, 지원 공간, 결격 사유가 없는 등의 <표 3>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3> 액셀러레이터 기관의 법적 자격 요건

구분	내용
등록세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하고 법에 명시된 관리를 받아야 함
자본금	일반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
임원	임원으로 등록된 자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전문인력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상근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함 - 벤처캐피탈에서 벤처투자 업무 3년 이상 종사 -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보육 업무 3년 이상 종사 - 액셀러레이터에서 액셀러레이팅 업무를 3년 이상 종사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3년 이상 진행 - 일정 매출 이상의 기업에서 3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 - 50억원 이상의 M&A 경험을 한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공계 또는 경상계 박사학위 보유자
공간 보유	선발한 스타트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출처: 신진오, 2018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에 맞는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에 대한 수요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김용재·염수현, 2014)

액셀러레이터는 다른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달리, 스타트업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등 경쟁을 통한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초창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자원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경영 경험, 프로세스, 자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액셀러레이터이다(Regmi et al., 2015).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문치게 하고 소셜캐피탈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Hochberg, 2014), 기존의 벤처캐피탈, 창업보육기관 그리고 엔젤투자자와는 차별화하여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정우, 2016).

액셀러레이터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유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큐베이팅 모델로 자리를 잡고 활동(Pauwels et al., 2015)하고 있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들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효과는 아직은 불분명하고,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Hochberg, 2014). 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기능과 각각 개별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과 시설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목적이고 멘토링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액셀러레이터 기관에 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보통 엔젤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위주로 구성되어 1억 이내의 시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도 교육과 후속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지만 엔젤투자자는 주로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스타트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 상승 후 지분의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탈리스트는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투자수익을 확대를 투자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에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은 투자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 벤처캐피탈에서 초기 기업 투자가 주목적인 펀드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후속 펀드 출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펀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관심이 투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회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스타트업에게도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면서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의 일반적인 투자 규모는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시드 투자에 해당되며, 액셀러레이터는 자신들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을 1억 원 이상의 투자 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시리즈 A (벤처캐피탈의 첫 투자 단계, 10억 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목표와 투자를 연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표 4>는 위에서 언급된 액셀러레이터와 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비교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액셀러레이터와 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의 비교

구분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기업 발굴	○	△	△	○
멘토링	○	△	○	×
교육	○	△	×	×
시드 투자	○	×	○	△
후속 투자 연계	○	×	×	△
사무공간 지원	○	○	×	×

\* 신진오(2018)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위 표에서도 나타나듯, 액셀러레이터는 입주 희망 기업의 사무 공간 제공과 기존의 단순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넘어 예비 창업가 및 초기 벤처기업과의 완전한 동반 관계를 의미한다(배영임, 2014). 입주 희망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단계를 거쳐 선발해 시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와 달리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팀을 구성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하는 초기 창업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안정화 확률을 높이는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즉,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의 벤처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벤처 발전과정 (Seed-Stage Development)에 깊게 관여하여 벤처기업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김용재·염수현, 2014). 또 다른 액셀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이다. 프로그램은 보통 3~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이 때 창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여러 분야의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창업 팀과 1: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과 투자유치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수별로 소수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교육과 공동 작업을 통해 팀 간에 서로 네트워킹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배영임, 2014).

액셀러레이터는 기존의 벤처캐피탈이나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자와 차별화하여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적인 종합 밀착 지원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정우, 2016). 이러한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스

타트업이 얻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시드 투자유치이다. 액셀러레이터에 선발되어 활동을 진행하면 운영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분 투자를 받게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멘토링과 교육, 피칭데이와 같은 실전연습을 진행하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마지막에 데모데이를 통해 운영기관을 통해 검증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엔젤투자자와 VC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벤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 하나로써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액셀레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국내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가 위와 같이 요구되는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자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들의 생존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2.2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2005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최초의 민간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가 초창기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다양한 형태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개가 넘는 액셀러레이터가 세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액셀러레이터 구분은 투자 주체, 지원 시기,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민간 자본의 위탁받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민간 주도형의 액셀러레이터가 투자집중형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프라이머, 팩스트랙아시아 등이 대표적인 민간주도형에 해당된다(김용재·염수현, 2014).

우리나라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는 이니시스 창업자인 권도균 대표가 2010년에 설립한 프라이머다. 2016년 하반기 액셀러레이터 법이 시행되고 ‘창업기획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액셀러레이터는 2017년 1월 아이빌트 세종을 포함하여 4개사가 처음 등록하였다. 현재 대기업인 롯데그룹, 최근 호서대 산학협력단을 시작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있고, 일부 액셀러레이터는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운용사로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다.

## 2.3 렌즈모델과 판단분석

### 2.3.1 렌즈모델 (Lens Model)

렌즈모델은 의사결정에 있어 인간의 인지과정과 의사결정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인간의 판단은 환경으로부터 인식된 불완전한 정보가 마치 볼록렌즈를 통해 투사된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것과 같이 재결합되는 과정이다. 여기서의 환경은 문제의 생태계 (ecology)로서 행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활

동하는 의사결정 환경 (decision environment)을 의미한다. 큐 (cue)는 행위자가 의사결정 또는 판단 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 또는 변수들이다. 의사결정의 오류 (decision error)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큐들을 일정한 규칙을 활용하여 종합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큐들과 이들의 조합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큐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얼마나 타당한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큐들이 실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환경과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상태적 타당도 (ecological validity)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심준섭, 2004; 2006). 또한,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한다. 즉 의사결정자는 각각의 큐에 대해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안선택을 위해 고려하는 평가기준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큐들 각각과 의사결정과정의 관계를 의미하는 큐 이용 타당도 (cue utilization validities)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각 큐의 기여도 가중치, 큐값의 변화와 의사결정 간의 함수 관계 (functional form)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선으로 표현된다. 이와 함께 각 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어떻게 통합 (integrate)되는가를 설명해주는 통합 원칙 (organizing principle)의 분석도 가능하다. 성취도 (achievement)는 생태적 타당도와 큐 이용 타당도 간의 일치도를 나타낸다. 한편 두 행위자의 판단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판단의 일치도를 평가할 수 있다(심준섭, 2004; 2006).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한 것을 의사결정자의 판단정책(judgment policy)이라고 한다.

큐의 상대적 가중치, 큐와 판단과의 함수관계, 의사결정을 위해 이용된 큐의 개수 등 의사결정자의 판단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바로 렌즈모델이며, 이러한 판단정책의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판단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판단분석이다.

### 2.3.2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결정 실무 및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합리적 기대이론에 바탕을 둔 다속성 효용이론 (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분석적계층화과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두 기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분석적 의사결정의 보조기제 (analytic decision aid)로서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은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심준섭, 2004). 국내에서 판단분석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는 조현순(1996)이 있으며, 안서원(2000)에 의해 기본 개념이 소개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비교 분석하는 데 판단분석 기법이 활용(반성식, 외, 2002) 되었으며, 현재는 심준섭(2002; 2006)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용되

며 소개되고 있다.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 기법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계량적으로 외연화 (externalize) 함으로써, 특정한 생태적 환경 (ecology)속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의사결정 분석기법이다. 판단분석의 목적은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판단을 위해 이용된 정보인 큐 (cue)와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판단분석은 인간의 인지과정의 기술적인 (descriptive) 분석에 초점을 둔다. MAUT를 비롯한 고전적 의사결정이론, AHP 및 비용편익분석 등의 의사결정 기법들은 합리성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을 해결하려는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으로써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판단분석은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효용극대화의 추구자 (utility maximizes)임을 전제하지 않으며, 행위자들이 어느 수준이상의 판단의 일관성만을 지닐 것을 상정한다(심준섭, 2004, 2006). 따라서 판단분석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효용을 가져오는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행위자들 간의 판단의 차이로 인해, 최대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는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판단분석 기법의 적용은 행위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돕고, 인지적 환류와 개인 간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행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방법론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분석 기법의 적용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심준섭,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큐를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Cooksey(1996)가 제시한 비네트 방식에 따라 판단과제를 제작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 공공 창업보육센터 심사를 통과 후 입주한 검증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판단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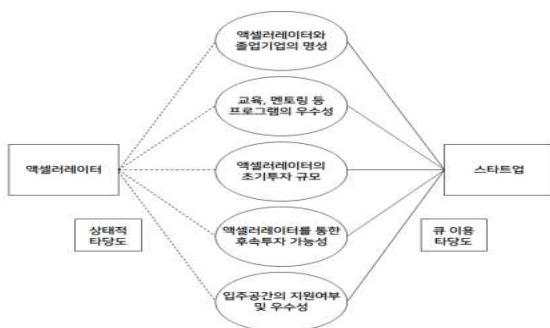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 모형

기존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며,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의와 특징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액셀러레이터의 공식적인 정의를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수 (Cohort)별로 멘토링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며 공동 창업공간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를 정의하고 있다(Cohen & Hochberg, 2014; Hochberg, 2014).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중 기존 창업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드 투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을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Hochberg, 2014). 액셀러레이터의 또 다른 연구로는 졸업 기업의 후속 투자 비율, TechStars와 Y-Combinator 같은 선두의 액셀러레이터에 참가한 기업과 아닌 기업간의 비교 등이 있다(Hochberg, 2014). 이렇듯 유명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와 졸업 기업의 성공률과 그들의 명성도 액셀러레이터의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논문들을 종합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핵심 내용으로 정의한 내용 중 액셀러레이터 법적 전문 인력에 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근무 중인 현직자의 검토를 거쳐 ①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②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 ③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④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⑤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의 5가지 요인을 이 연구를 위한 주요 변수 (cue)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이라 판단문제와 도출된 큐들을 렌즈모델에 대입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존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기준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내용은 없고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스타트업의 종합적인 평가에 어떠한 정보 요인 (cue)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 판단분석 기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판단분석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스타트업의 종합적인 평가’로 판단문제를 정의하고, 다음 단계로 액셀러레이터의 선택기준이 되는 사례의 질문 문항의 선정은 판단분석 모델의 선행논문들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판단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판단분석 연구로

진행한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명수(2009)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벤처캐피탈의 투자사결정의 세부항목을 정리한 선행논문을 종합해 사례의 큐를 선정하였고, 진정구·심준섭(2009)은 고위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인식분석 연구의 사례의 5개의 큐 선정에 고위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5개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심준섭(2006)은 정책과정에 대한 판단분석 기업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사례를 평가하는 설문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큐의 선정은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5가지를 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양정호·심준섭(2016)은 뇌심혈관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판단과제 제작을 위한 큐의 선정은 뇌심혈관질환 질병의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 판단방법과 근로 복지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검토해 5가지의 판단요인을 큐로 선정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아래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정의

변수	내용	세부 내용	선행 연구
독립 변수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해당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 Pauwels, et al., (2015) - Hochberg (2014) - Regmi, et al.,(2015)
	프로그램의 우수성	교육,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의 우수성	- Cohen & Hochberg (2014) - Pauwels, et al., (2015)
	초기 투자 규모	최대 투자금의 상한 등 최소 투자금의 규모	- Pauwels, et al., (2015) - Hochberg (2014) - Regmi, et al.,(2015)
	후속 투자 가능성	후속 투자 연계와 가능성 및 최종 데모데이 규모	- Cohen & Hochberg (2014) - Regmi, et al.,(2015)
	입주공간 지원여부 및 우수성	사무공간의 지원, 위치 등의 우수성	- Hochberg (2014)
종속 변수	개별 의사결정자의 종합판단 점수	해당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택대상으로서의 가치	- Pauwels, et al., (2015) - Hochberg (2014) - Regmi, et al.,(2015)

### 3.3 판단과제의 제작

액셀러레이터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 (cue)들을 활용하여 판단과제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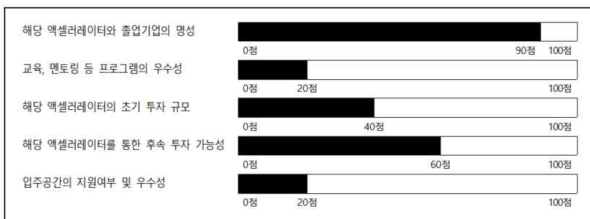
독립변수는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해당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교육,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의 우수성), 초기 투자 규모 (최소 투자금의 규모, 최대 투자금의 상한 등), 후속 투자 가능성 (후속 투자 연계 및 가능성, 최종 데모데이 규모),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사무공간의 지원, 위치 등 우수성), 총 5가지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는 개별 의사결정자의 종합판단점수 (해당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선택대상으로서의 가치)로 진행된다. 여기서 회귀분석은 n명의 집단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집단적 회귀분석이 아닌 개별적 회귀분석이 적용된다.

판단분석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판단과제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 모두 비네트 방법(Cooksey, 1996)을 활용하였다. 차명수(2009)는 각 사례를 연구주체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통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제작하였고, 진정구·심준섭(2009)는 시나리오 제작에 있어서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구성하고, 시나리오 상이한 조합으로 서로 다른 판단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하였다. 심준섭(2006)은 큐 값들의 조합을 시나리오 별로 다르게 구성하여 가상의 사례들을 제작하였고, 양정호·심준섭(2016)은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의사결정 연구를 위한 판단과제 제작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판단이 내려진 시나리오로 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단과제의 제작을 위해 액셀러레이터 법적 전문 인력에 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근무 중인 8인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총 5개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중 5개사를 앞서 선정된 큐를 통해 100점 척도로 평가해 총 40개의 판단과제를 제작하였다. <그림 2>는 현직자들이 액셀러레이터를 평가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렇게 제작된 판단과제 중 평가 값이 중복되거나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는 판단과제에서 제외되었다. 5개의 큐를 선정해 진행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5:1의 기준의 최소 5배인 25개 이상의 사례를 필요로 한다(심준섭, 2004). 이를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30개의 사례를 제작해 제시하였다.



<그림 2> 현직자 A의 X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평가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질문과 평가 예시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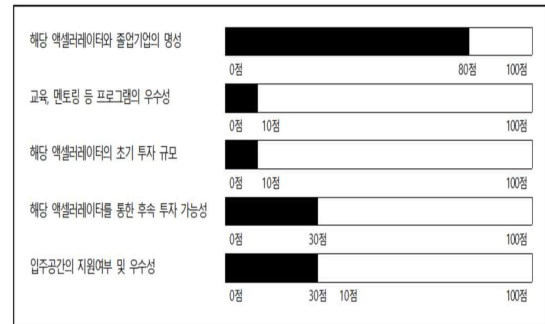
다음 문항부터는 어느 액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점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총 30개의 사례들은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들이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를 모델로 평가한 사례입니다. 귀하께서 참가할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해당 액셀러레이터를 전체적으로 종합평가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액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사례를 보시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예시 및 안내

아래는 사례의 예시입니다. 귀하께서 참가할 액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점수의 한 사례입니다. 아래의 예시는 나머지 문항은 점수가 낮지만 응답자는 첫번째 문항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첫번째 문항이 80점의 고득점이어서 종합평가가 70점을 준 경우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아래의 총 30개 사례에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70 점]



<그림 3> 판단과제 제작 예

판단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 대상 선정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창업 초기 단계로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보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3년 미만의 창업자 중 액셀러레이터의 경험이 없고 초기 단계를 넘어 액셀러레이터 단계에 올라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공공 BI 입주경험자, 엔젤투자금 유치,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IV. 실험 결과

### 4.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 해당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해당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5가지 요인 (cue)을 독립변수로, 종합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각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정책을 분석하였다. 집단적 (nomothetic) 회귀분석이 아닌 개별적 (idiographic) 회귀분석이 적용되므로 35명의 응답자에 대한 35번의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집단적 (nomothetic) 회귀분석이 아닌 개별적 (idiographic) 회귀분석이 적용된다. 회귀분석 시, R2은 선형판단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판단의 분석 (variance)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의사결정자의 판단정책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의사결정자의 판단이 일관적이라면 판단의 예측치와 실제 판단치의 차이가 적을 것이며, 따라서 판단일관성 지수 (R2)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R2는 판단의 일관성 또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수로도 활용된다. 판단의 일관성 지수 R2에 대한 검증은 회귀분석의 F검증과 동일하다. 즉, 판단의 일관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판단모형은 F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4.2.1 평가지표별 가중치 지표 분석: 표준화계수

본 연구에서 35명에 대한 35번의 회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F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난 30명의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를 살펴보면 스타트업 별 표준화회귀계수와 계수의 크기에 따른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30명의 스타트업 간에는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큐의 상대적 가중치(표준화회귀계수)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교: 표준화계수

I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초기 투자 규모	후속 투자 가능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R2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1	.040	-.074	.467	.724**	.211	.539
2	-.312	-.029	.454*	.665**	.536*	.662
3	.197	.043	.791***	.509**	-.039	.732
4	.033	.455*	.942***	.822***	.383*	.714
5	-.630**	-.072	.350	.220	-.213	.669
6	.160	.146	.566**	.903***	.103	.722
7	.007	-.298*	.411*	.533**	-.176	.807
9	.268	.421*	.513*	.804***	-.122	.677
11	-.280	.559*	-.111	.135	.153	.587
12	.084	.359	.925**	.557*	.631*	.536
13	-.090	.136	.434*	.855***	-.072	.797
14	-.014	.693***	.673***	-.090	-.158	.818
17	-.258	-.466**	.270	.253	-.389*	.761
18	.314*	-.189	.395*	.641***	-.049	.795
19	.320	-.363	.305	.427*	.029	.663
20	.028	-.024	.465***	.834***	-.121	.929
22	.618***	-.126	-.158	.478***	-.111	.914
23	.718***	.033	.085	.724***	.164	.848
24	.312	-.098	.383	.701**	.035	.673
25	.310	.198	.425*	.491*	-.357	.693
26	.205	.130	.872***	.639**	.243	.611
27	.969***	-.002	-.035	.042	-.016	.971
28	-.010	.046	.770***	.811***	.033	.963
29	.917***	.000	.614***	.110	.031	.945
30	.722***	.108	-.073	.022	.873***	.917
31	-.247	.604**	.389	.485*	-.090	.609
32	.865***	.079	.021	.049	.865***	.939
33	.969***	-.002	-.035	.042	-.016	.971
34	.111	.017	.907***	-.009	.834***	.926
35	.586***	-.247	.383*	.078	-.210	.838

\* p<.05, \*\* p<.01, \*\*\* p<.001

<표 7>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교: 표준화계수 기술통계

구 분	M	S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23	.41
프로그램의 우수성	.07	.28
초기 투자 규모	.41	.32
후속 투자 가능성	.45	.32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10	.34
R2	.77	.14

특히 <표 7>에서 제시된 것처럼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SD=0.41),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SD=0.34),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SD=0.32),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SD=0.32), 프로그램의 우수성 (SD=0.2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평가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개 평가지표는 가중치의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중치의 응답자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SD=0.41)의 경우 응답자 27과 33의 가중치가 0.969로 가장 큰 반면에, 응답자 7은 0.007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스타트업 간에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에 주된 비중을 두는 정도의 차이가 개인별로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응답자 5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가중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스타트업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모형에서 R2은 응답자의 판단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는데 본 연구에서 R2은 0.539에서 0.971 사이에 폭넓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R2은 0.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의 판단 분산의 77%가 판단모형에 의해 설명 가능함을 나타낸다. 예컨대 위에서 예시한 응답자 27번, 33번의 R2은 0.971로 응답자 1번의 0.539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27번, 33번의 경우 선형 판단모형을 통해 판단의 분산이 97.1%가 설명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응답자 1번의 경우 53.9%만이 설명 가능하였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35명의 응답자 중 5명 (14.3%)의 판단모형은 유의도 검증 (F-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판단모형의 R2은 0.35를 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14% 정도는 판단의 일관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표 8> 판단의 일관성이 미흡한 5명의 판단모형

I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초기 투자 규모	후속 투자 가능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R2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가중치 (β)	
8	.173	.747**	.509	.488	.174	.344
10	.518	.343	.448	.349	.334	.113
15	.338	.163	.290	.210	.418	.076
16	-.213	-.266	-.240	-.231	.006	.072
21	-.042	-.626*	.018	-.147	.054	.341

\* p<.05, \*\* p<.01

<표 9>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립 연차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 체	1년 미만	9
1-2년 미만		15	50.0
2-3년 미만		6	20.0
전 체		30	100.0

#### 4.2.2 평가지표별 가중치 지표 분석: 표준화계수 합을 1로 변환한 경우

응답자별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 표준편차를 구한 <표 7>과 별도로 평가지표의 순서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 합을 1로 변환한 경우인 <표 10>과 <표 11>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자별로 표준화회귀계수의 합을 1로 환산한 경우를 보여준다. 표준화계수 합을 1로 변환하여 순위를 판단하는 <표 11>이를 통해 얻어진 각 규의 가중치의 평균값을 백분위로 확인 할 수 있어 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31%,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29%,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23%,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9%, 프로그램의 우수성 8%의 비중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10>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교: 표준화계수 합을 1로 변환한 경우(응답자별)

I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초기 투자 규모	후속 투자 가능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1	.029	-.054	.341	.530	.154
2	-.237	-.022	.345	.506	.407
3	.131	.029	.527	.339	-.026
4	.013	.173	.357	.312	.145
5	1.823	.209	-1.012	-.638	.618
6	.085	.078	.301	.481	.055
7	.015	-.623	.861	1.115	-.369
9	.142	.223	.272	.427	-.065
11	-.614	1.226	-.242	.296	.335
12	.033	.140	.362	.218	.247
13	-.071	.108	.343	.677	-.057
14	-.012	.628	.609	-.082	-.143
17	.437	.789	-.456	-.428	.658
18	.283	-.170	.355	.577	-.044
19	.446	-.506	.425	.595	.040
20	.023	-.020	.393	.706	-.102
22	.882	-.180	-.225	.682	-.159
23	.416	.019	.049	.420	.095
24	.234	-.074	.288	.526	.026
25	.291	.186	.398	.460	-.334
26	.098	.062	.417	.306	.116
27	1.012	-.003	-.037	.044	-.016
28	-.006	.028	.467	.491	.020
29	.549	.000	.367	.066	.019
30	.437	.065	-.044	.014	.529
31	-.216	.529	.341	.425	-.078
32	.460	.042	.011	.026	.460
33	1.012	-.003	-.037	.044	-.016
34	.060	.009	.488	-.005	.448
35	.995	-.420	.649	.133	-.357

<표 11>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교: 표준화계수 합을 1로 변환한 경우(규 별)

구 분	M	S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29	.48
프로그램의 우수성	.08	.36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23	.37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31	.35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09	.27

#### 4.2.3 평가지표별 가중치 지표 분석: 순위

<표 12>를 살펴보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고려해할 평가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평가지표는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3명이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지표는 7명이 응답한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이었다.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는 5명, 프로그램의 우수성 4명,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은 2명이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은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커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교:

ID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초기 투자 규모	후속 투자 가능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1				1	
2			3	1	2
3			1	2	
4		3	1	2	4
5	1				
6			2	1	
7		3	2	1	
9		3	2	1	
11		1			
12			1	3	2
13			2	1	
14		1	2		
17		1			2
18	3		2	1	
19				1	
20			2	1	
22	1			2	
23	2			1	
24				1	
25			2	1	
26			1	2	
27	1				
28			2	1	
29	1		2		
30	2				1
31		1		2	
32	1				1
33	1				
34			1		2
35	1		2		

응답자들 간에는 액셀러레이터 선택을 위해 고려한 단서의 개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중치의 유의도 검증결과를 통해 응답자별로 판단을 위해 고려한 유의한 단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단서들만을 고려할 때, 5개의 단서 모두를 유의하게 중요하다고 고려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고, 4개를 고려한 응답자는 1명(3.3%), 3개를 고려한 응답자는 5명(16.7%), 2개를 고려한 응답자는 16명(53.3%), 1개를 고려한 응답자는 8명(26.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2개의 단서를 판단에 이용한 경우가 24명으로 응답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응답자들 간 판단정책의 일치도

ID	1	2	3	4	5	6	7	9	11	12	13	14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	1																													
2	.46*	1																												
3	.58**	.36	1																											
4	.39*	.67**	.51**	1																										
5	.36*	.57**	.49**	.72**	1																									
6	.78**	.39*	.71**	.57**	.43*	1																								
7	.74**	.33	.73**	.40*	.44*	.73**	1																							
9	.49**	.25	.55**	.51**	.34	.68**	.67**	1																						
11	-.33	.22	-.40*	.19	.18	-.20	-.49**	-.14	1																					
12	.09	.66**	.24	.75**	.53**	.17	.16	.13	.26	1																				
13	.69**	.47**	.61**	.68**	.57**	.87**	.68**	.71**	-.11	.27	1																			
14	-.13	-.06	.18	.31	.36	-.07	-.06	.09	.31	.30	-.01	1																		
17	.58**	.30	.77**	.40*	.54**	.61**	.77**	.43*	-.42*	.14	.60**	.04	1																	
18	.64**	.27	.70**	.37*	.21	.74**	.82**	.63**	-.63**	.09	.69**	-.28	.61**	1																
19	.61**	.11	.64**	.16	.21	.64**	.70**	.31	-.66**	-.06	.49**	-.34	.67**	.80**	1															
20	.66**	.43*	.65**	.62**	.51**	.79**	.82**	.75**	-.24	.30	.87**	-.05	.72**	.79**	.58**	1														
22	.30	-.12	.27	-.13	-.27	.42*	.45*	.40*	-.42*	-.35	.30	-.58**	.27	.69**	.62**	.47**	1													
23	.36	.00	.23	.00	-.23	.41*	.51**	.41*	-.32	-.18	.31	-.50**	.27	.68**	.57**	.52**	.92**	1												
24	.69**	.36*	.77**	.32	.25	.66**	.70**	.51**	-.51**	.04	.59**	-.26	.69**	.83**	.74**	.69**	.64**	.62**	1											
25	.40*	.03	.75**	.28	.29	.62**	.63**	.71**	-.37*	-.09	.57**	.19	.58**	.69**	.52**	.65**	.48**	.38*	.68**	1										
26	.57**	.40*	.76**	.64**	.49**	.70**	.64**	.52**	-.31	.45*	.57**	.17	.57**	.63**	.53**	.66**	.13	.14	.56**	.55**	1									
27	-.04	-.49**	.07	-.39*	.56**	.04	.14	.11	-.48**	-.44*	-.15	-.42*	.02	.38*	.42*	.04	.81**	.70**	.33	.28	-.06	1								
28	.71**	.51**	.79**	.72**	.62**	.82**	.83**	.66**	-.28	.43*	.80**	.14	.78**	.75**	.60**	.88**	.24	.31	.68**	.64**	.77**	-.15	1							
29	.14	-.32	.50**	-.05	-.22	.23	.44*	.26	-.65**	-.12	.05	-.07	.38*	.57**	.59**	.30	.59**	.53**	.46**	.50**	.36*	.78**	.28	1						
30	-.32	-.20	-.51**	-.45*	-.59**	-.40*	-.47**	-.46*	.01	-.23	-.57**	-.51**	-.59**	-.29	-.12	-.57**	.16	.15	-.25	-.50**	-.38*	.43*	-.65**	.05	1					
31	.25	.50**	.27	.68**	.56**	.34	.14	.43*	.48**	.52**	.46*	.41*	.09	.04	-.14	.30	-.26	-.18	.11	.17	.25	-.48**	.41*	-.37*	.55**	1				
32	-.23	-.29	-.44*	-.56**	.70**	.38*	-.37*	-.40*	-.17	-.32	-.55**	-.53**	.52**	-.19	-.02	-.52**	.26	.25	-.16	-.39*	-.43*	.54**	-.60**	.20	.93**	-.63**	1			
33	-.04	-.49**	.07	-.39*	-.56**	.04	.14	.11	-.48**	-.44*	-.15	-.42*	.02	.38*	.42*	.04	.81**	.70**	.33	.28	-.06	1**	-.15	.78**	.43*	-.48**	.54**	1		
34	-.03	.35	.09	.33	.25	-.17	-.10	-.32	.02	.64**	-.20	.29	.03	-.21	-.11	-.17	-.59**	-.46*	-.21	-.36	.24	-.39*	.08	.01	.11	-.04	.09	-.39*	1	
35	.23	-.27	.48**	.07	.00	.36	.55**	.32	-.59**	-.07	.24	-.09	.48**	.63**	.67**	.51**	.60**	.55**	.47**	.54**	.45*	.67**	.40*	.90**	-.09	-.28	.02	.67**	-.07	1

\* p<.05, \*\* p<.01

4.2.4 응답자들 간 판단의 일치도

<표 13>을 살펴보면 30명의 응답자들 간 판단의 일치도 (degree of agreement)를 나타내는 것으로, 30개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별 판단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응답자 27과 33의 판단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1.000). 이와는 대조적으로 응답자 2와 23, 그리고 4와 23 사이의 판단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0.002).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고 판단정책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판단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에서 제시된 30개의 사례에 대한 국내 스타트업 대표 3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각 응답자들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평가에서 5개의 큐를 활용한 평가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각각의 큐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설문 응답대상이 3년 미만의 액셀러레이터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판단 기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의 발전방향에 아직 명확하게 스타트업에 입장에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사용된 각 큐

의 상대적 가중치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졸업 기업의 명성,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액셀러레이터를 평가할 때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후속 투자 가능성의 평가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평가지표는 가중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 응답자별 인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전에 문항을 도출하며 현직 액셀러레이터들의 의견은 액셀러레이터의 명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후속 투자가 더 높게 나와서 사람들의 통념과 다르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터 선택에 사용된 각 큐의 상대적 가중치 평균값을 백분위로 나타내면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후속 투자 가능성 31%, 액셀러레이터와 졸업기업의 명성 29%,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 규모 23%, 입주공간의 지원여부 및 우수성 9%, 프로그램의 우수성 8%이다.

이 결과는 액셀러레이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4%로 과반 이상의 응답으로 투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하려는 액셀러레이터들이 각 부분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발전해 나가면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연구 주제와 결과로 도출된 내용이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다음

의 한계점도 갖고 있다.

첫째,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관련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해 세부적인 큐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판단분석 기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응답자에게 제시될 사례의 수가 늘어나는데, 응답자의 집중력 등을 고려할 때 답안의 성실도 저하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큐의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현재는 액셀러레이터 법이 제정되고 2년도 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므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설문 응답처럼 객관적 합의가 아닌 주관적인 내용이 아직은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안정화가 된 후에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더욱 객관적인 내용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단분석 기법 자체가 연구에 많이 활용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연구에서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관련 활동이 초기 단계에 속함으로 인해 많은 표본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판단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지만 향후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실증분석 결과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후속 투자유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를 액셀러레이터에 원한다고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는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액셀러레이터들에게 많은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과 초기 스타트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

국제무역연구원(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Trade Brief, 서울: 한국무역협회.

기획재정부(2013).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보도자료

김선우(2015). 창업생태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과학기술정책지*, 1(203), 20-25.

김용재·염수현(2014). 벤처 액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Premium Report*, 14(2), 1-16.

반성식·Andrew Zacharakis·송경모(2002).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 의사결정 모형: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재무관리연구*, 19(2), 271-297.

배영임(2014). *액셀러레이터의 성과와 핵심성공요인*, 중소기업 포커스, 14(6),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신진오(2018).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심준섭(2002).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있어 판단분석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2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12), 1-16.

심준섭(2004).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기법의 활용: 분석적계층화(AHP) 및 다속성효용(MAU)기법과의 비교, 2004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13.

심준섭(2006). 정책과정에 대한 판단분석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345-376.

안서원(2000). *의사결정의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양정호·심준섭(2016).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의사결정연구: 판단분석 기법의 활용, *국가정책연구*, 31(2), 187-210.

이정우(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hip Korea*, 1, 7-10.

조현순(1996). 레스토랑의 이용자의 소비자 행동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4(2), 299-315.

주강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5(1), 145-170.

중소기업청(2013).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5019&parentSeq=10050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08&efYd=20190101#0000>

진정구·심준섭(2009). 고위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인식 분석: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의 활용, *행정논총*, 47(3), 51-78.

차명수(2009). 벤처캐피탈의 투자 의사결정 연구: 판단분석의 활용,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2(4), 19-43.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8). 2018 요약보고서, <https://www.kvca.or.kr>

Ahn, S. W.(2000). *Psychology of Decision Making*, Seoul: Sigma Press.

Bae, Y. I.(2014). *Accelerators Performance and Key Success Factors*, Small Business Focus, 14(6), Seoul: (KOSBI).

Bahn, S. S., Andrew Z., & Song, K. M.(2002). Venture capitalist investment decision model: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19(2), 271-297.

Cha, M. S.(2009). A Study of Venture Capital's Investment Decision Making: Using Judgment Analysi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2(4), 19-43.

Cho, H. S.(1996). Consumer behavior analysis of restaurant users,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4(2), 299-315.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Available at SSRN 2418000.

Cooksey, R. W.(1996). *Judgement analysis: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san Diego, U.S.A.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Entrepreneurs and Ecosystems: The Seed Accelerator Model,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6(1), 25-51.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2015). *Overcoming the Death Valley of IT Venture Companies and Implications*, Trade Brief, Seoul: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Jin, J. K., & Shim, J. S.(2009). An Evalu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Senior Official through Judgment Analysi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7(3), 51-78.

- Ju, K. J., Lee, M. H., Yang, H. J., & Ryu, D. J.(2016). Fintech, Financial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5(1), 145-170.
- Kim, Y. J., & Yeom, S. H.(2014). Understanding and Policy Direction of Venture Accelerator, *KISDI Premium Report*, 14(2), 1-16.
- KVCA(2018). *2018 KVCA Yearbook & VENTURE CAPITAL DIRECTORY, KVCA*
- Kim, S. W.(2015). The Role and Issues of Accelerator in Entrepreneurship Eco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203), 20-25.
-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KVCA's) Homepage, Retrieved from Jun 12, 2018, <https://www.kvca.or.kr>.
- Lee, J. W.(2016). Leader, Accelerator of Entrepreneurial Popularization, *Entrepreneurship Korea*, 1, 7-10.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Venture, startup fund ecosystem, good circulation plan*, Press Releases.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8). *Countermeasures for Innovating Private Sector Venture Ecology*, Press Releases.
- Pauwels, C., Clarysse, B., Wright, M., & Van H. J.(2015). Understanding a new generation incubation model: *The Accelerator*, *Technovation*, 50, 13-24.
- Regmi, K., Ahmed, S. A., & Quinn, M.(2015). Data Driven Analysis of Stareup Accelerators, *Universal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Management*, 3(2), 54-57.
- Shim, J. S.(200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Judgment Analysis Technique in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Proceedings of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2002(12), 1-16.
- Shim, J. S.(2002). Use Judgment Analysis Technique: Comparison with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Multi-attribute Utility(MAU) Techniques,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004(12), 1-13.
- Shim, J. S.(2006).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cision Analysis Method to Policy Process, *Korea Journal of Policy Science*, 10(4), 345-376.
- Shin, J. O.(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Startup Accelerator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3). *Survival Rate of Domestic Start-up Companies*, Press Releases.
-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201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08&efYd=20190101#0000>
- Yang, J. H., & Shim, J. S.(2016).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or Work-related Disease Using Judgment Analysis, *Public Policy Review*, 31(2), 187-210.

## Key Factors Affecting a Startup Entrepreneur's Choice of Accelerator

Kwon, Yong-Seok\*  
Hwangbo, Yun\*\*  
Lee, Jong-Hoon\*\*\*

### Abstract

Even though Korea is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startups due to the limitations of growth policies focusing on large companies,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is very low, so that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As the existing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have provided only fragmentary supports to startups,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he comprehensive support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the accelerator providing the comprehensive support such as spatial support, education, mentoring, networking, seed investment, and connection for follow-up investment to the initial startups was legalized in Korea of 2016,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Currently, within less than two year from then, there have been much interest in it enough to have about 136 registered accelera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accelerator was introduced more than ten years ago.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so that the researches or social consensus on the accelerator are not sufficient.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ccelerator and the consensus on the decision making for the selection of accelerator of startups, by researching which parts are considered when startups in the accelerator stage select the accelerator.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decision making factors when startup chooses an accelerator was the subsequent investment attraction. This can be explained to the accelerator as desired, considering the factor that the startup of the initial stage places the most importance on growth as investment. We hope that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sustainable in future research related to accelerators, in hopes that it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accelerator policies for domestic startups and direction for revitalizing related industries.

*Keywords: Startup, Accelerator, Choice of Accelerator, Lens Model, Judgment Analysis*

---

\* First Author, Researcher,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kys@kvca.or.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yun88@kookmin.ac.kr

\*\*\* Co Author, Director, Lotte Accelerator, hoohoon@lotte.net